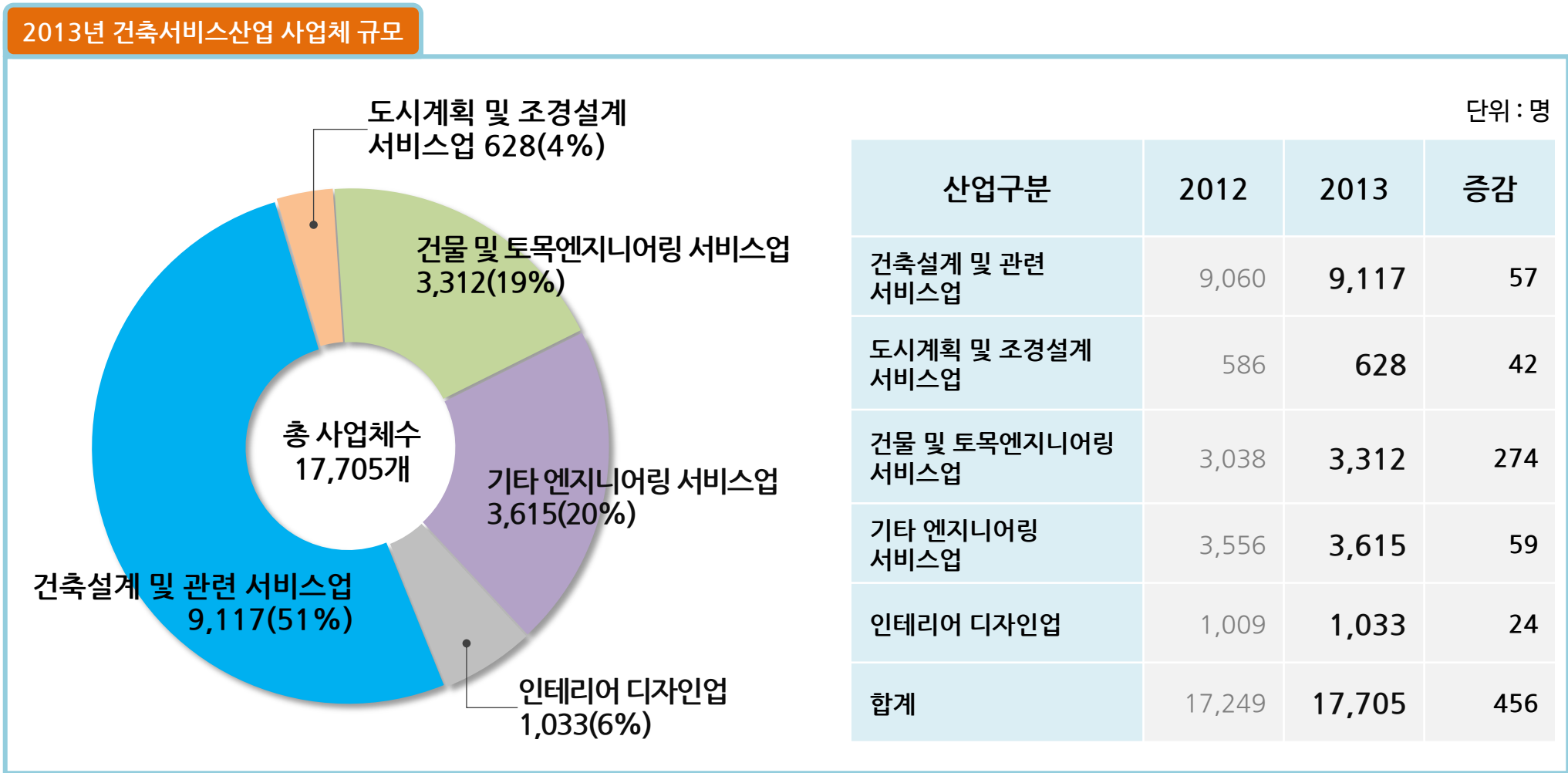


2013년 건축서비스산업 사업체 현황

전문분야별 사업체 규모

2013년 건축서비스산업 사업체 규모는 2012년보다 456개 증가한 17,705개 이다.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의 사업체 수가 가장 많고 ‘도시계획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체수 증감은 매출액과 종사자 부문과 달리 건축서비스산업 모든 분야에서 증가하였으며 특히 ‘건물 및 토목엔지니어링 서비스업’이 274개 (9%)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가장 적게 증가한 분야는 ‘인테리어 디자인업’이었으며,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은 증가율이 약 0.6%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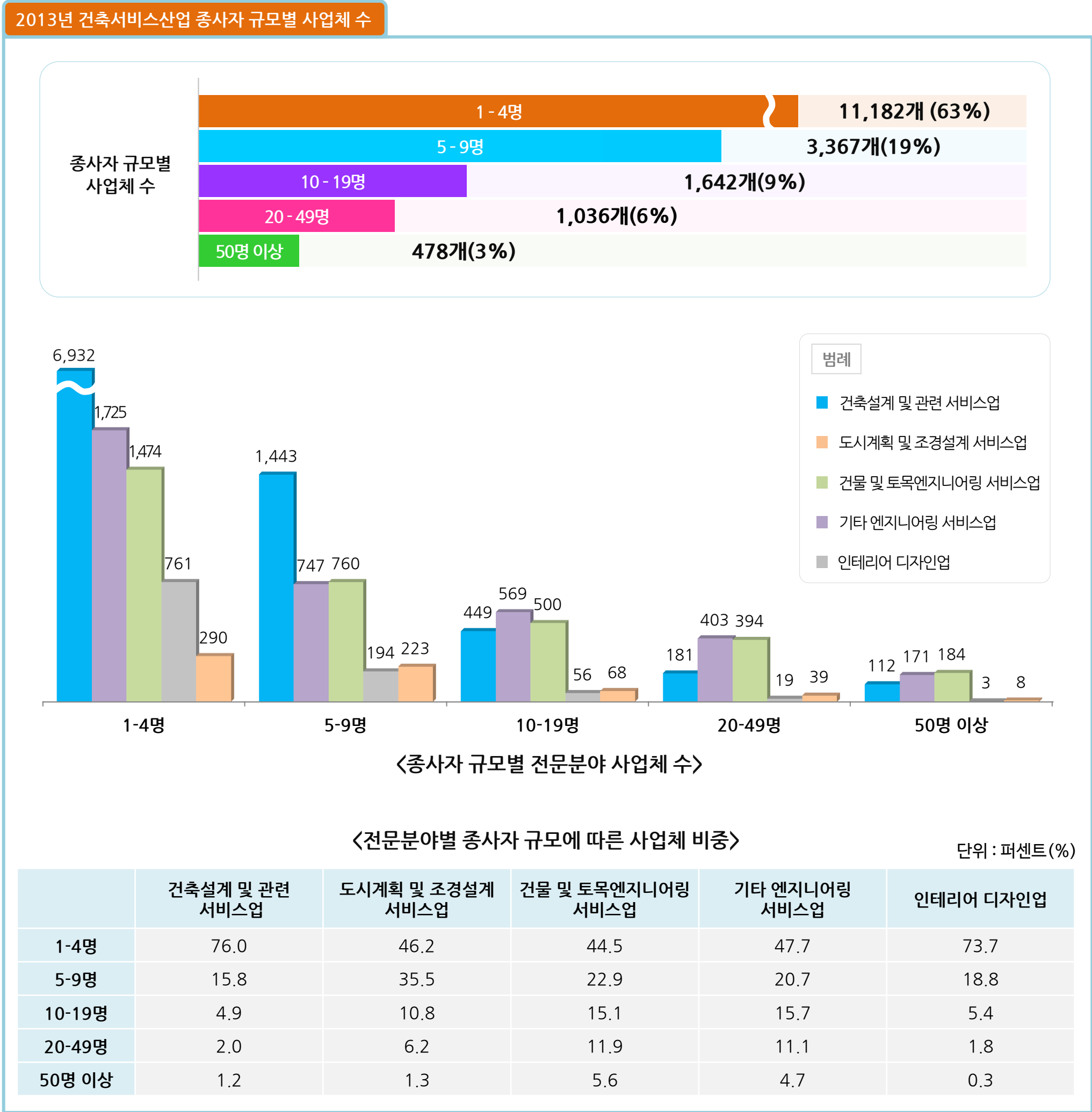


종사자 규모별 사업체 현황

2013년 건축서비스산업 사업체의 평균 종사자수는 약 9.9명으로 전년도 대비 0.3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체 규모를 종사자수에 따라 5개 범주로 구분했을 때 종사자수가 많을수록 전체 사업체수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1~4명 소규모 사업체가 약 11,182개(63.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5~9명 규모의 사업체는 3,367개(19%), 10~19명 사업체는 1,642개(9%), 20~49명 사업체는 1,036개(6%), 50명 이상 사업체는 478개로 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규모별 전문분야 사업체는 1~4명, 5~9명 규모의 사업체의 경우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1~4명 규모의 사업체에서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이 동 규모의 사업체의 6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0~19명, 20~49명 사업체에서는 ‘기타엔지니어링 서비스업’이, 50명 이상 규모의 사업체에서는 ‘건물 및 토목엔지니어링 서비스업’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인테리어 디자인업’은 1~4명 규모의 사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규모에서 가장 사업체수가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문분야별 종사자 규모에 따른 사업체 비율에서는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과 ‘인테리어 디자인업’의 경우 1~4명 규모의 사업체가 각각 76%, 74%이며, 20명 이상 사업체의 비중은 각 3.2%, 1.2%로 영세한 규모의 사업체 비율이 타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머지 분야 역시 종사자 규모가 커질수록 사업체 비율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1~4명 사업체 비중이 전체의 44%~48% 로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과 ‘인테리어 디자인업’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건물 및 토목엔지니어링 서비스업’과 ‘기타엔지니어링 서비스업’의 경우 타 분야에 비해 50명 이상의 사업체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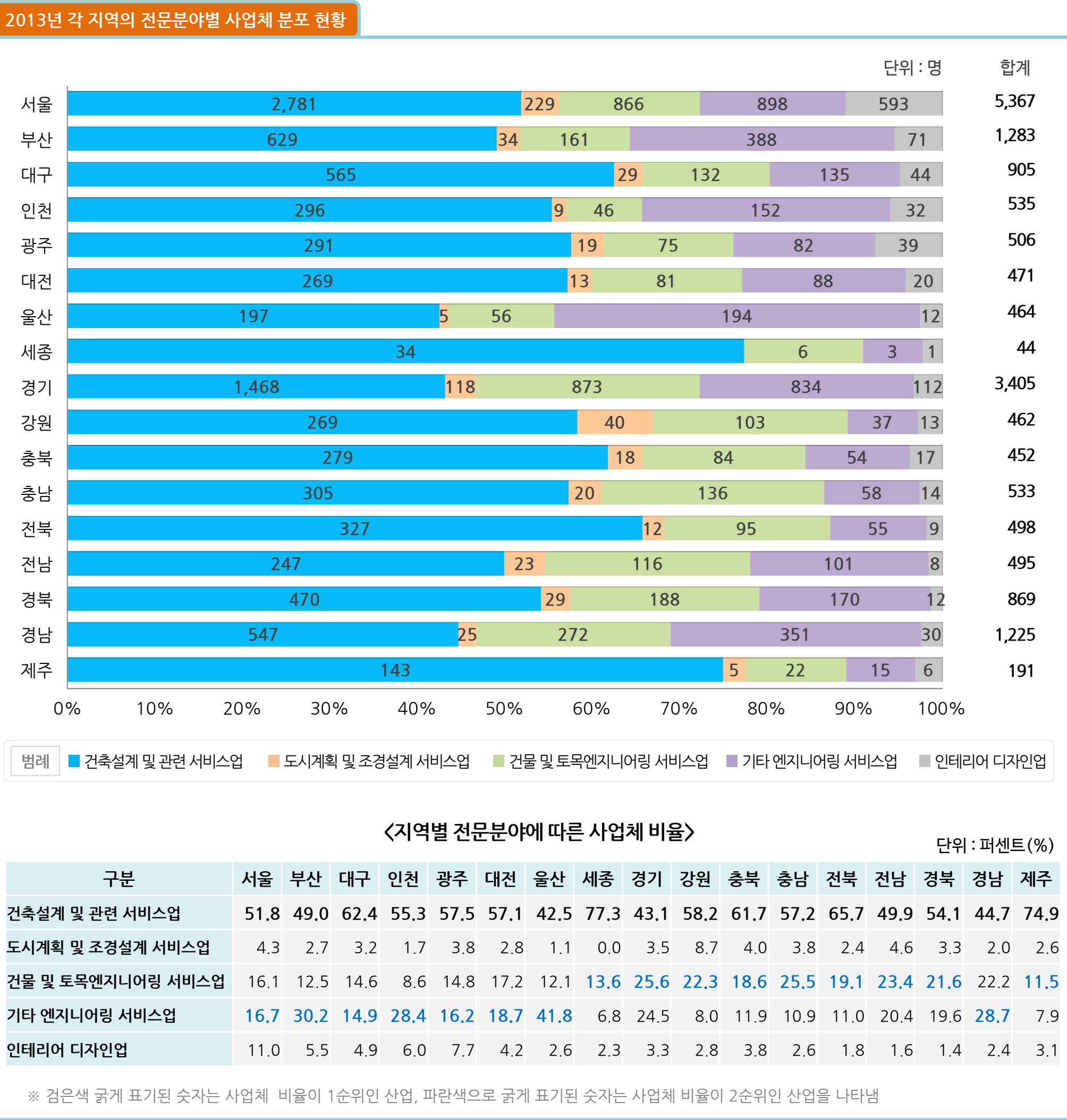


지역 및 전문분야별 사업체 현황

지역별 사업체수는 서울이 5,367개로 전체 사업체의 약 30%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기도는 3,405개(19.2%), 부산 1,283개(7.2%), 경남 1,225개(6.9%)로 나타났다. 이 4개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1,000개 미만의 사업체를 가지고 있었으며 세종시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 중 제주도가 191개(1.1%)로 사업체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및 전문분야별 사업체 분포현황은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 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분야는 시·도에 따라 분포 양상이 다르게 나타났다. 우선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 다음으로 ‘건물 및 토목엔지니어링 서비스업’과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이 높게 나타났는데, ‘건물 및 토목 엔지니어링 서비스업’은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제주, 세종 등 도 지역을 중심으로 분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나머지 지역은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이 더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그리고 분포비율이 가장 낮은 ‘도시계획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과 ‘인테리어 디자인업’ 역시 시·도에 따른 분포양상의 차이를 보였다.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남, 제주에서는 ‘인테리어 디자인업’이 ‘도시계획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 보다 높은 분포를 보였으며 나머지 지역에서는 그 반대 양상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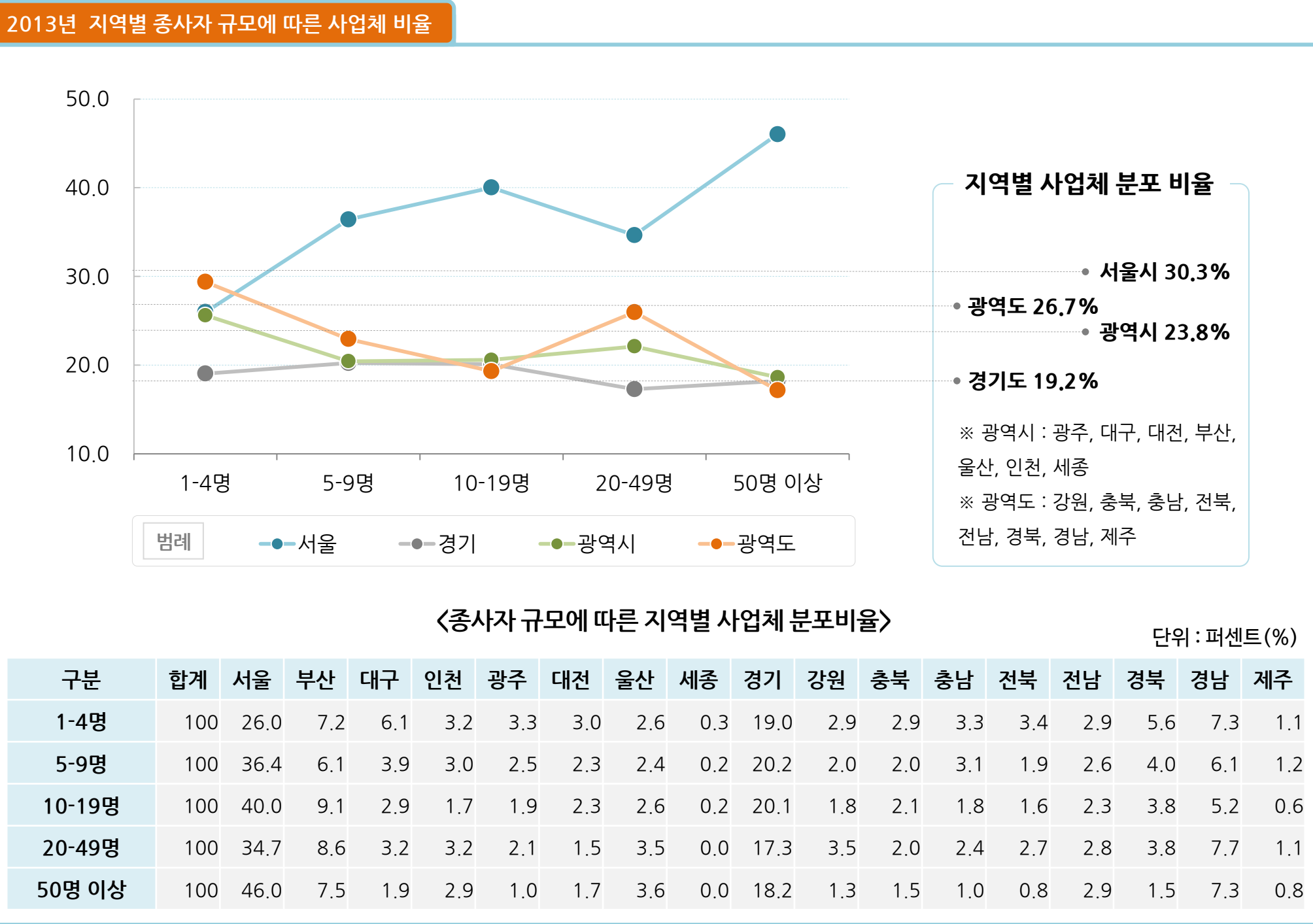
일반적으로 사업체수 비율과 종사자 비율이 서로 비례한다고 예측해 볼 수 있으나 실제로는 지역에 따라 종사자 비율과 사업체 비율이 전혀 상이한 결과를 보이고 있어 사업체와 종사자간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사자 규모에 따른 지역별 사업체 현황

각 지역별 규모에 따른 사업체수는 영세한 사업체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서울, 부산, 울산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10명 미만 규모의 사업체 비율이 80% 이상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구, 세종시는 10인 미만 사업체가 90%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세종시의 경우 20명 이상 규모의 사업체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5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 중 서울에 약 46%(220개), 경기도 18.2%(87개)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4명 규모의 사업체의 경우 서울 약 26%(2,905개), 경기도 19.0%(2,128개) 분포하여 규모가 작은 사업체보다 큰 사업체에 대한 수도권 분포 비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서울의 경우 사업체 규모가 커질수록 전국에서 차지하는 사업체 비율이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는 반면 나머지 시, 도의 경우 사업체 규모가 커질수록 사업체 점유율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지역별 종사자 규모에 따른 사업체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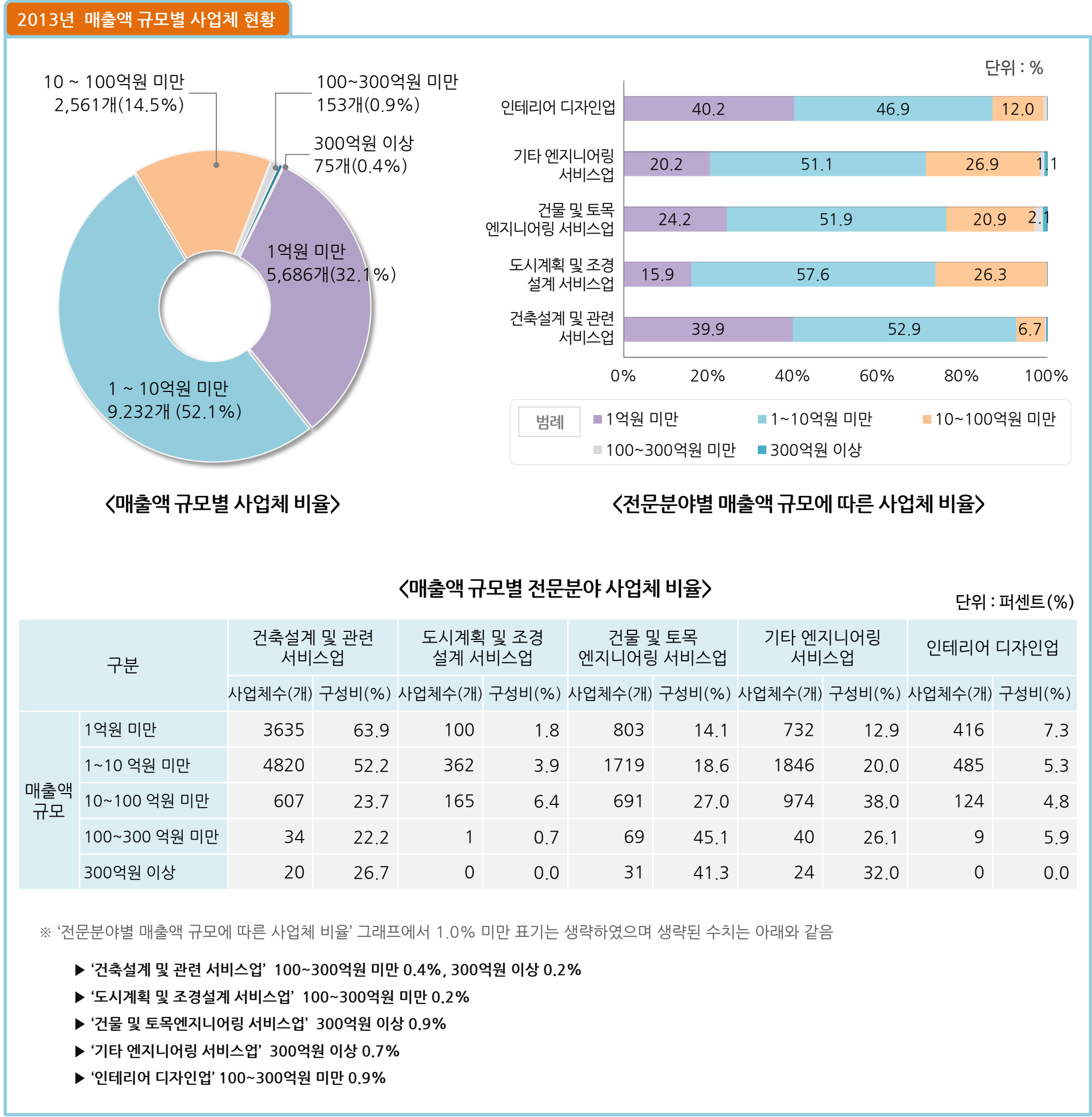
	1-4명		5-9명		10-19명		20-49명		50명 이상		합계 (100%)
	사업체수 (개)	구성비(%)	사업체수 (개)	구성비(%)	사업체수 (개)	구성비(%)	사업체수 (개)	구성비(%)	사업체수 (개)	구성비(%)	
서울	2,905	54.1	1,226	22.8	657	12.2	359	6.7	220	4.1	5,367
부산	804	62.7	205	16.0	149	11.6	89	6.9	36	2.8	1,283
대구	684	75.6	131	14.5	48	5.3	33	3.6	9	1.0	905
인천	358	66.9	102	19.1	28	5.2	33	6.2	14	2.6	535
광주	364	71.9	84	16.6	31	6.1	22	4.3	5	1.0	506
대전	331	70.3	79	16.8	37	7.9	16	3.4	8	1.7	471
울산	289	62.3	80	17.2	42	9.1	36	7.8	17	3.7	464
세종	34	77.3	7	15.9	3	6.8	0	0.0	0	0.0	44
경기	2,128	62.5	681	20.0	330	9.7	179	5.3	87	2.6	3,405
강원	324	70.1	66	14.3	30	6.5	36	7.8	6	1.3	462
충북	320	70.8	69	15.3	35	7.7	21	4.6	7	1.5	452
충남	369	69.2	105	19.7	29	5.4	25	4.7	5	0.9	533
전북	375	75.3	64	12.9	27	5.4	28	5.6	4	0.8	498
전남	326	65.9	88	17.8	38	7.7	29	5.9	14	2.8	495
경북	628	72.3	133	15.3	62	7.1	39	4.5	7	0.8	869
경남	819	66.9	205	16.7	86	7.0	80	6.5	35	2.9	1,225
제주	124	64.9	42	22.0	10	5.2	11	5.8	4	2.1	191

매출액 규모별 사업체 현황

건축서비스산업 사업체 중 10억원 미만 사업체는 총 14,918개로 전체의 약 8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1~10억원 미만 사업체는 9,232개로 전체 사업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액 10억 이상부터는 매출액 규모가 클수록 사업체 개수가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으며 매출액 300억원 이상의 사업체는 75개로 전체 사업체의 0.4%로 조사되었다.

각 전문분야별 매출액 규모에 따른 사업체수는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과 ‘인테리어 디자인업’의 경우 매출액 10억원 미만 사업체가 각각 92%, 87%로 타 분야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반면 ‘도시계획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 ‘건물 및 토목엔지니어링 서비스업’,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은 매출액 10억 이상의 사업체 비율이 각각 26.4%, 23.9%, 28.7%로 조사되었다.

매출액 규모별 전문분야 사업체 비율에서는 10억원 미만 사업체의 경우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이, 10~100억원 미만은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100억원 이상 사업체에서는 ‘건물 및 토목엔지니어링 서비스업’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은 1억원 미만 63.9%(3,635개), 1~10억원 미만 52.2%(4,820개)로 조사되었으며,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은 10~100억원 미만 사업체 38%(974개), ‘건물 및 토목엔지니어링 서비스업’은 100~300억원 미만 45.1%(69개), 300억원 이상 사업체가 41.3%(31개)로 집계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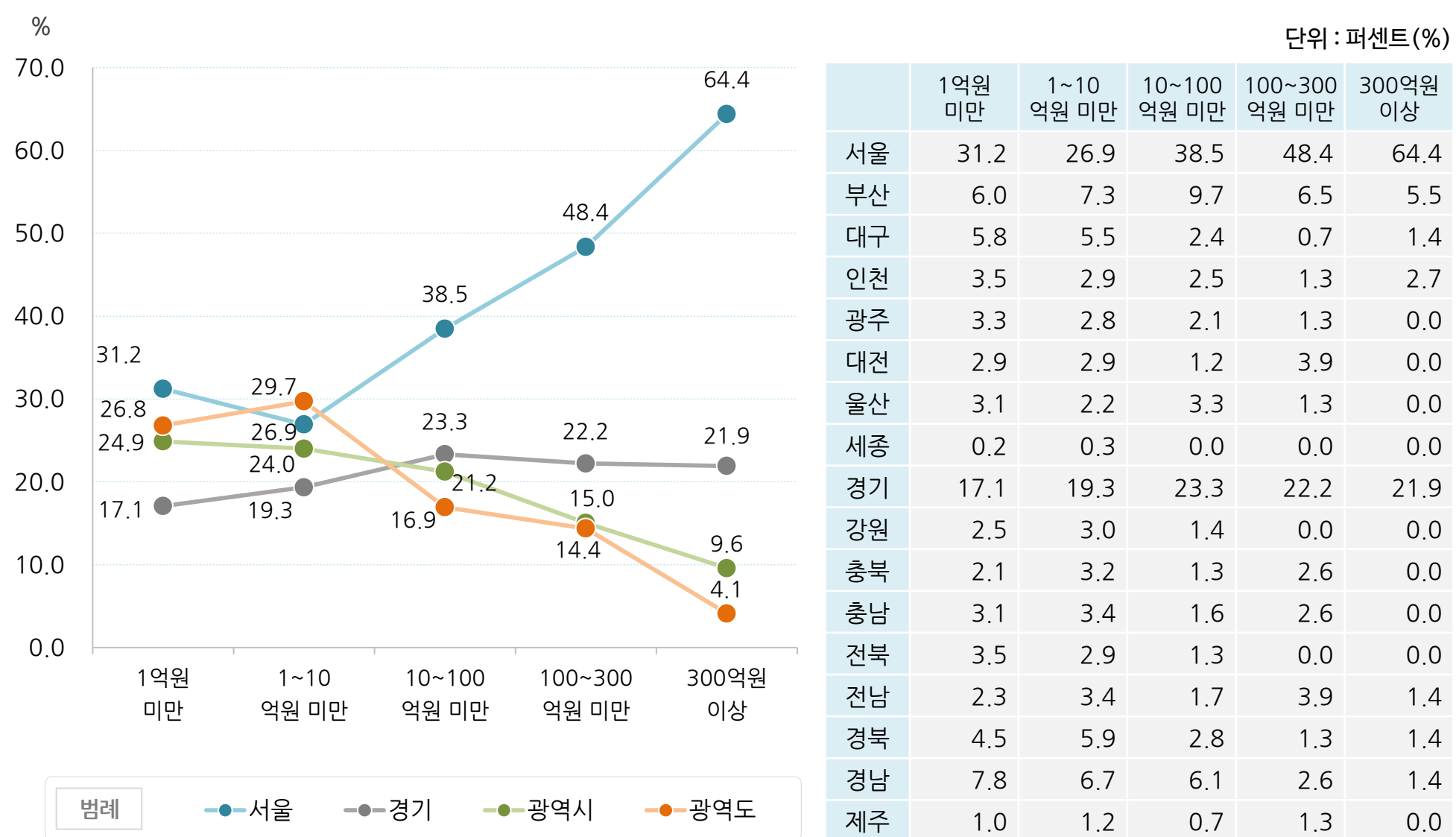


매출액 규모에 따른 지역별 사업체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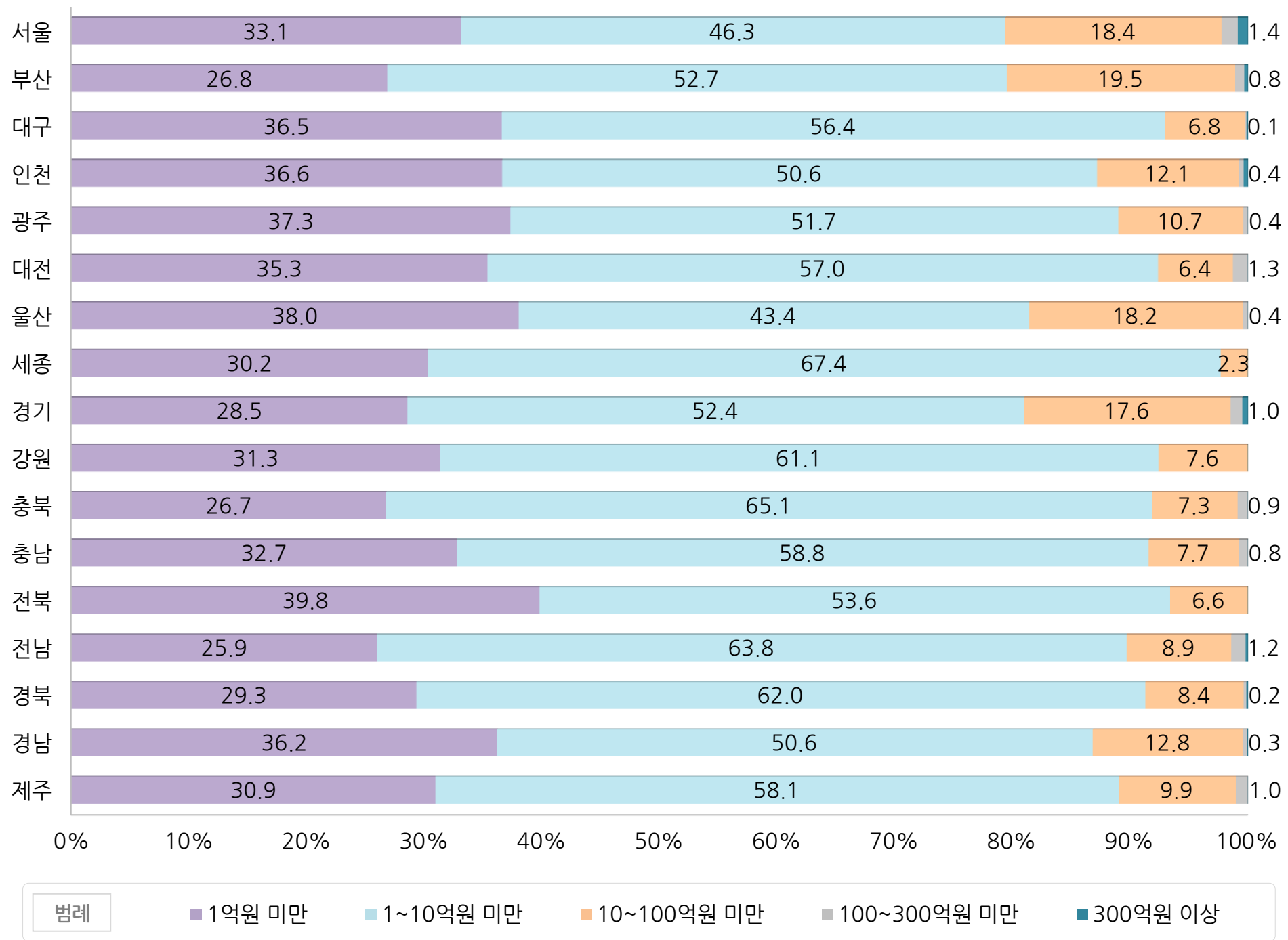
매출액 규모에 따른 지역별 사업체 분포 비율은 서울과, 경기지역에서 전반적으로 높은 분포율을 보였으며, 서울의 경우 매출액 규모가 클수록 전체 산업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매출액 100~300억원 미만 규모의 사업체는 서울에 48.4%, 경기도 22.2% 였으며, 300억원 이상의 사업체는 서울 64.4%, 경기도 21.9%로 매출규모가 큰 사업체의 경우 특정 지역에 과도하게 편중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서울, 경기지역과 반대로 나머지 광역시·도는 매출액 규모가 클수록 사업체 비율이 낮아졌으며, 매출액 10억원 이상 사업체의 경우 도 지역의 분포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각 지역별 매출액 규모에 따른 사업체 분포비율은 모든 지역에서 1~10억 규모의 사업체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1억원 미만, 10~100억원, 100~300억원, 300억원 이상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 경기, 부산, 울산 등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경우 10억 이상 사업체부터 그 비율이 현저히 낮아졌으며,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매출액 100억 이상의 사업체가 차지하는 비율은 2% 미만으로 조사되었다. 세종시와 전북의 경우 매출액 100억원 이상 사업체부터, 광주, 대전, 울산, 강원, 충북, 충남, 제주도는 매출액 300억원 이상의 사업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013년 매출액 규모 및 지역별 사업체 현황



〈매출액 규모에 따른 지역별 사업체 분포 비율〉



〈각 지역의 매출액 규모별 사업체 비율〉

※ '각 지역의 매출액 규모별 사업체 비율' 그래프에서 300억원 이상은 사업체 비율은 1.0% 미만으로 표기를 생략하였으며 생략된 수치는 아래와 같음

▶ 서울 0.9%, 부산 0.3%, 인천 0.4%, 경기 0.5%, 전남 0.2%, 대구, 경북, 경남은 각 0.1%이며, 나머지 지역은 0%로 조사됨